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4년 11월 17일(일) 제1516호

“다음세대 응원단이 되어주세요!”



11월 17일까지 '2025년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를 모집한다.

11월 17일까지 '2025 차세대 교사 모집' 차세대 교사 390명, 사랑부 교사 30명 필요

‘2025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를 모집한다. 2025년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로 섬기기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11월 17일(일)까지 소속 공동체 담당목사에게 추천을 요청한 다음,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 또는 QR 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 온누리교회 국내 11개 캠퍼스 차세대 교사는 2,922명이다. 다음세대를 사랑으로 교육할 차세대 교사 390명, 사랑부 교사 30명이 더 필요하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 91명, 사랑부 교사 10명, 양재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 65명, 사랑부 교사 10명, 도곡교육관 차세대 교사 28명, 이 외 다른 캠퍼스에서는 차세대 교사 206명, 사랑부 교사 10명을 모집한다.

2025년 신입 차세대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사명교육’도 열린다. 목요일 12월 5일부터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Zoom), 토요일 12월 7일부터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교육한다. 사랑부 교사교육은 장애인사역본부에서 별도로 실시한다.

한편 11월 27일(수)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교사부흥집회’가 막 오른다. 차세대 교사, 신입 차세대 교사,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부모와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문의: 서빙고 02-3215-3521

양재 및 도곡 02-570-7436

서빙고 사랑부 02-3215-3263

양재 사랑부 02-570-7349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누리공동체 하반기 종강예배

2024년 온누리 공동체 하반기 종강예배를 드린다. 11월 21일 서빙고공동체를 시작으로 12월 14일 용산공동체까지 공동체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종강예배를 드린다(표 참조).

올해 하반기 온누리 공동체는 11월 30일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 12월 14일 탁구인 맞춤형도전대회, 연말까지 ‘열린순예배’ 등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언으로서의 발걸음을 이어간다.

서빙고			
날 짜	공동체	장 소	시 간
11월 21일(목)	서빙고	한동홀	18:00
11월 22일(금)	찬양사역	비전홀	18:00
11월 23일(토)	신용산	서울역 공간모아	17:00
11월 23일(토)	이수	파주 영산수련원	19:00
11월 23일(토)	북누리	비전센터	16:00
11월 26일(화)	이촌	두란노홀	18:00
11월 26일(화)	가정사역	한동홀	18:00
11월 26일(화)	관악금천	비전홀	18:00
11월 26일(화)	강촌	시온홀	18:00
11월 26일(화)	여의도	정곡빌딩	20:00
11월 28일(목)	성동광진	두란노홀	18:00
11월 28일(목)	마포	비전홀	18:00
11월 29일(금)	한강	한동홀	18:00
11월 29일(금)	양천	비전홀	18:00
11월 29일(금)	성북	시온홀	18:00
12월 1일(일)	특초	순형홀	17:00
12월 1일(일)	고양은평	예수인교회	17:00
12월 3일(화)	occ	두란노홀	18:00
12월 3일(화)	영등포구로	한동홀	18:00
12월 3일(화)	동작	비전홀	18:00
12월 5일(목)	동대문중앙	두란노홀	18:00
12월 5일(목)	서대문	한동홀	18:00
12월 6일(금)	강서	두란노홀	18:00
12월 6일(금)	노원	한동홀	18:00
12월 6일(금)	S브릿지	시온홀	18:00
12월 6일(금)	광명	하인자로교회	18:00
12월 7일(토)	일산파주	비전센터	18:00
12월 7일(토)	김포	연결고리때밀리처치	16:30
12월 13일(금)	중종로	시온홀	18:00
12월 14일(토)	용산	한동홀	13:00

양재			
날 짜	공동체	장 소	시 간
11월 23일(토)	양재A	강화도	16:00
11월 23일(토)	강남D	드림홀	18:00
11월 26일(화)	강남E	도곡 기쁨홀	19:30
11월 26일(화)	서초A	온유홀	19:00
11월 26일(화)	도곡	드림홀	19:30
11월 28일(목)	강남B	온유홀	20:00
11월 28일(목)	서초C	드림홀	18:50
11월 28일(목)	서초B	기쁨홀	19:00
11월 29일(금)	송파B	화평홀	19:00
11월 29일(금)	분당B	온유홀	19:00
11월 29일(금)	송파A	드림홀	19:30
11월 29일(금)	POINT5	도곡 온유홀	19:30
12월 1일(일)	하모니	두란노홀	16:30
12월 3일(화)	강남A	화평홀	19:00
12월 6일(금)	강남C	화평홀	19:40
12월 6일(금)	경기A	온유홀	19:30
12월 6일(금)	분당A	드림홀	19:30
12월 7일(토)	서초D	화평홀	16:00
12월 7일(토)	과천의왕	온유홀	15:30
12월 7일(토)	양재B	드림홀	17:00

캠퍼스			
날 짜	공동체	장 소	시 간
11월 23일(토)	부천 믿음	본당	17:00
11월 23일(토)	부천 소망	비전홀	19:00
11월 23일(토)	부천 사랑	본당	10:30
-	부천 희망	각 다락방별 진행	-
11월 22일(금)	부천 화평	비전홀	19:30
11월 26~28일	수원 연합	기흥 ICT벨리 C동 1층	19:30
11월 29일(금)	대전 동누리	비전홀	19:30
11월 29일(금)	대전 서누리	본당	19:30
12월 6일(금)	대전 남누리	본당	19:30
11월 29일(금)	대전 북누리	세종교육관 본당	19:30
11월 27일(수)	남양주 연합	본당 지하 2층	19:30
12월 8일(일)	평택 연합	본당	14:00
12월 6일(금)	인천 동누리	소망홀	20:00
11월 29일(금)	인천 서누리	본당	20:00
12월 6일(금)	인천 남누리	본당	20:00
11월 29일(금)	인천 북누리	소망홀	20:00
11월 29일(금)	강동 연합	본당	20:00
11월 24일(일)	양지 연합	박모세홀	14:00
11월 29일(금)	영종 연합	백향목홀	19:30

공동의회

일시: 11월 24일 3부 예배 후 / 장소: 양재 사랑홀
대상: 18세 이상 세례 교인
안건: 장로후보 및 임직자 후보 투표

11월 22일까지 엔젤트리 사연 모집

홈페이지,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연역한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는 ‘2024 엔젤트리’ 사연을 11월 22일(금)까지 모집한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나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에서 사연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엔젤트리 사연신청서에는 돕고 싶은 이웃의 정확한 주소와 사연, 전하고 싶은 선물과 연락처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야 한다. 신청자 이름, 소속 공동체 및 다락방, 연락처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이웃에게 전달할 선물은 5만 원 이하(옷, 음식, 현금 금지)여야 한다.

2024 엔젤트리 사연은 11월 23일(토)부터 국내 온누리교회 11개 캠퍼스 로비에 게시할 예정이다. 모든 사연이 연결될 때까지 게시한다.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를 제외한 캠퍼스는 상황에 맞춰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엔젤트리 사연이 게시되면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엔젤트리 데스크와 엔젤트리 홈페이지(angeltree.kr)에서 참여하면 된다. 엔젤트리 사연을 뽑은 다음 사연 속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선물을 보내면 된다. 사연이 연결되면 엔젤트리본부에서 개인 연락처로 이웃의 이름과 주소를 전달해 준다. 선물은 ‘엔젤트리’ 이름과 주소, 연락처로 보내는 게 좋다.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탁구인 맞춤형도전대회 ‘핑퐁 in Love’

12월 14일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

2024 탁구인 맞춤형도전대회 ‘핑퐁 in Love’가 12월 14일(토) 오후 2시 온누리 청소년센터 체육관(지하 1층)에서 열린다. 1부 탁구대회(오후 2시~5시 30분), 2부 식사 및 토크쇼(오후 6시~8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핑퐁 in Love’에서는 여성민 목사(전도사역본부장)가 설교하고, 양영자 선교사(88년 서울올림픽 탁구복식 금메달리스트, 전 청소년 탁구 국가대표 감독), 가수 이무송, 색소폰 연주자 심상중, 가수 하다쉬 뮤직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탁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회비는 2인 3만 원이다. 문의: 010-3772-3686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바울은 죄수 신분으로 그리스도 증인의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 계속 이어지는 당시 재판관들 앞에서 나타난 바울의 모습은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죄만이 아니라 재판받을 만한 죄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시 로마 최고 지도자에게 상소할 수 있는 법을 이용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 과정에서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아그립바 2세에게 추가적인 심문을 받습니다.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바울이 아그립바 2세 앞에서 자신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 연설에서 “자신은 유대민족을 배반한 적이 없다. 자신은 과거에도 유대인이었고, 현재도 충실한 유대인이다. 도리어 자신은 정통적이고 충실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 그 약속을 따라 소망을 가졌을 뿐이다. 그 소망 때문에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설명하는 장면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뒤로 갈수록 그 장면을 더욱 세심하게 기록했기에 이 내용을 읽어 보면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닫고, 부르심을 받은 두 가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닫게 되고, 부르심을 받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그립바 2세에게 설명합니다.

첫째, 약속을 따라 오신 메시야가 예수님이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첫 번째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예언자를 통해 약속하신 핵심의 실체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야이며,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에게도 구원의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23절).

로마 황제를 대리하는 지도자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다가 이제는 입을 닫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에

게는 걸림돌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베스도가 소리 높여 외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베스도의 외침은 오늘날에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이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와 비슷합니다.

“그저 여유 있을 때, 매주 교회 나갈 필요 없이 가끔 가면 되고, 자신이 주인이 된 인생을 살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 가끔 기도하면 되고, 엑세서리처럼 필요할 때 믿으면 되는 것이지, 전적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매일, 주일마다 게다가 공동체까지 참여하면서 물질로 헌신하면서 너무 광신적인 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옥한흠 목사님 메시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100% 칭찬만 받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대답합니다.

“베스도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이며,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그립바 왕에게 호소합니다.

“왕은 이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에 소문이 다 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소식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그립바 왕에게 도전합니다.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저는 왕께서 믿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재치 있는 한 수입니다. 아그립바 왕은 유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위치에서 예언자들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언자들을 믿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예언자들을 믿는다면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이 성취되는 것을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호소하려고 아그립바 왕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해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했기에 거부**

“그러자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28절).

아그립바 왕은 바울이 자신을 지금 전도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자신을 설득해서 모든 예언자가 약속한 것을 이루신 예수님이 메시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아그립바 왕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짧은 시간에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예언자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예언자를 믿으십니까?”라고 말했을 뿐인데, 아그립바 왕이 안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도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바울이 한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맞는 말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이 틀려서가 아니라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그립바 왕이 바울 심문을 끝내고 집에 가면서 속으로 ‘하마터면 믿을 뻔했네’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습니다. ‘오늘 내가 믿을 뻔했지’라고 말합니다. 아그립바 왕이 “네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넘어 온 것입니다. 설득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순간 자신의 위치가 무너지고, 자신이 쌓아왔던 거짓이 무너지고, 어쩌면 내가 로마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온갖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 그 어떤 사상보다 진실하고, 복음은 이 세상 그 어떤 논리보다 명확하고, 복음은 그 어떤 주장보다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삶과 역사에 대해 가장 진실하고, 정확하고,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그립바 왕이 그런 태도였습니다.

**로마까지 가야하고,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기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상황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죄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29절).

이 말을 하는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입니다. 이 말을 듣는 이들은 헤롯 아그립바 2세, 총독 베스도입니다. 귀족들입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위치가 바뀐 것 같습니다. 아그립바 왕이나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이 죄사슬을 제외하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게 세상적으로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반대로 죄수가 자신을 재판하는 이들에게 “이 죄사슬을 제외하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만이나 착각에 빠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인 분명한 진리 위에 서 있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구원의 초청, 생명의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담합니다. 억울해 하지도 않습니다.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몸은 매여 있지만,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그가 끌려가는 상황에서 도리어 이끌고 있습니다. 법적인 주도권은 총독에게 있지만, 영적인 주도권은 바울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법적 제도를 통해 벌을 받고 있지만, 진정 바울을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는 이유는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로마에 가셔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은 선교사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영적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영적 주도권을 가졌다는 증거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서 나타납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해

서 로마까지 가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립바는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황제께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도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라고 말했습니다”(32절).

이 말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충분히 입증되었기 때문에 상소하지 않았어도 바울이 풀려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상소했기 때문에 죄수의 신분이 연장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바울이 풍랑을 만나고, 죽을 뻔한 위기를 거치면서 로마까지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서는 그가 갇힙니다. 그때는 재판도 받지 않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때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사실 그때 바울이 “나, 로마시민이요”라고 말했다면 함부로 못 때렸을 것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로마 시민권의 가치가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갇혀 있을 때라도 “나, 로마시민이요”라고 했다면 풀려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 맞을 때도, 갇혀 있을 때도 한마디도 안합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지진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간수가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그를 말리고 전도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합니다. 풀어줄 때가 되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잘못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풀려날 수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상소함으로써 죄수의 신분이 연장되고,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서 계속 죄수의 신분으로 갇힙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풀려날 수 있었는데 정반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는 나중에 밝혀서 감옥에 갇히고, 가이사라에서는 분명하게 호소해서 계속 갇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어진 사회의 특권을 자신을 보호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정반대로 희생

하는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전하는 일을 자신이 풀려나는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제 로마에게 가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죄수의 신분이 연장되는 것뿐이기에 항소한 것입니다. 자신의 무죄가 드러나기를 바라서 상소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까지 가야하고,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권을 자신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죄수의 신분이 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부활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의 기회로 사용했습니다. 바울의 태도가 아그립바 왕에게 하는 말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이들에게

“아그립바 왕이여, 제가 오늘 당신 앞에서 유대 사람들의 모든 모함에 대해 저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2절).

‘다행으로 여긴다’는 것은 이제 풀려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아닙니다. 아그립바 왕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왔기에 여기 서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22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면 벌써 풀려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도움과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

나님의 도움이라면 어려운 상황에서, 무고한 상황에서 풀려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 바울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신이 죄수의 신분으로 높고 낮은 많은 사람에게 증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몇 년 전 두란노서원에서 출간한 케네스배 선교사님의 간증집 <잊지 않았다>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북한사역을 하려고 중국에 여행사를 세워서 북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일을 하면서 그 땅을 밟고 기도하다가 실수로 외장하드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거기에는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여리고 작전’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드러나서 15년 형량을 선고받습니다. 강제노역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구해 주십시오. 빼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점차 그분의 기도가 ‘나를 이 상황에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바뀌었다고 합니다. 만 2년 만에 풀려났는데 이 기간이 흥미롭게도 바울이 가이사라와 후에 로마의 셋집에 억류되었던 시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시기에 케네스배 선교사님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지를 기도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이 죄사슬 외에는 자신처럼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자신을 재판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수치스러운 위치를 계속 지키려고 복음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이들이 자신을 통해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이들로 변화되기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상황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죄 판단의 주권 (1)

죄 판단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진리에 대한 전쟁은 기준의 전쟁이다. 절대적 진리가 있다는 것은 절대적 기준이 있다는 의미이고, 진리의 왜곡은 기준의 왜곡을 수반한다. 로스쿨 재학 당시 형법(criminal law) 첫 수업시간에 ‘malum in se’와 ‘malum prohibitum’이라는 두 라틴어 용어를 배울 기회가 있었다. 라틴어 ‘malum in se’에서 ‘malum’은 ‘악(惡)’을 의미하고, ‘in se’는 그 자체로서(in itself)라는 뜻이다. 결국 ‘malum in se’는 ‘그 자체로서 악한 것’을 말한다. 반면 ‘malum prohibitum’에서 ‘prohibitum’은 영어 ‘prohibit’에서 알 수 있듯이 ‘금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malum prohibitum’은 그 자체로서 악한 것은 아니지만, ‘금지해서 악하게(죄가) 된 것’이다. 형법에서 ‘malum in se’의 대표적인 예가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행위다. ‘malum prohibitum’의 대표적인 예는 80km 제한속도 도로에서 90km의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 등이다. 후자의 경우 기준이 80km라서 90km 속력으로 차를 모는 게 불법이지만, 만일 기준이 100km로 상향되면 불법이 되지 않는다. 보통 ‘malum prohibitum’에 대해서는 ‘죄’라는 표현보다 사회적 기준을 ‘위반’했다는 순화된 표현을 사용한다. ‘malum prohibitum’은 기준 변경에 따라 죄(위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malum in se’는 그렇지 않아서 해당 행위를 하면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죄가 성립된다.

그런데 ‘그 자체로서 악한 것’을 인간이 어떻게 보편성과 일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을까? 만일 사람마다 ‘그 자체로서 악한 것’에 대한 기준이 다르면 그 자체로서 악한 것을 죄로 규정짓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없게 되는 문제에 봉착한다. C.S. 루이스는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 자체로서 악한 것’에 대한 기준을 판단하는 인간의 행동 규범으로 ‘자연법(natural law)’을 설명하고 있다.

C.S. 루이스는 자연법을 선과 악 그리고 선과 악을 있게 한 누군가를 소개하는 과정으로 다룬다. 그는 자연법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 기묘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인간은 누구나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는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C.S. 루이스가 ‘자연법’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 기묘한 생각’이라고 정의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C.S. 루이스는 인간이 자기 생각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간파한 것이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사도 바울은 인간이 얼마든지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 또는 원하는(생각하는 방향)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행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질 때 인간의 죄성이 극명히 드러나는 순간임을 고백한 것이다. 만일 자연법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하는 행동’이라면 살인자는 양심도 없고, 자연법의 지배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살인했다고 해서 완전히 양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양심의 지도(instruction)를 따르기를 거부했을 뿐이다. 위무치지 않는 살인자도 자신이 따르지 않은 지도 주체인 양심은 가지고 있다. 그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하는 행동’에서 벗어났지만, 자신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인간이라며 따로 배우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악한 것(malum in se)’이 무엇인지 판별할 수 있는 도덕 규범을 가지고 있다. <로마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굳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법으로 주어지지 않았어도 이미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가 양심에 새겨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인간에게 새겨진 자연법 혹은 도덕 규범은 시대적으로도 변함이 없고, 지역적으로도 변함 없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일일이 계약서가 없어도,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인간 사회가 유지되고 굴러가는 이유

는 보편성이 담보되는 자연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법의 보편성은 절대적 선악 기준이 있음을 보여주고, 동시에 절대적인 죄 판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런데 포스트모더니즘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가변적이므로 절대적인 죄 판단의 주권을 거스른다. 대표적으로 이른바 성혁명을 주도하는 이들은 ‘그 자체로서 악한(malum in se) 절대적 영역에 속한 죄 된 행위를 상대적 영역(malum prohibitum)으로 옮기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절대적 죄 판단의 기준을 바꾸는 시도다. 이 시도가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글로벌 성혁명이다. 그 산출물이 차별금지법이다. 차별금지법은 ‘그 자체로서 악한(malum in se) 절대적 영역에 있는 동성애를 ‘상대적 영역(malum prohibitum)’으로 판단 기준을 옮기는 시도이다. 하나님께 있는 고유한 죄 판단의 주권 영역을 인간이 침범하는 무모한 신(新)바벨탑이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죄의 영역이 아니라 ‘차별의 영역’으로 옮겨옴으로써 죄의 판단에서 교묘하게 벗어나게 하는 데서 시작한다.



노지준 집사
(서초D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특별기고

C.S. 루이스가 여전히 설득력 있는 이유

11월에는 C.S. 루이스의 생일(11월 29일)과 기일(11월 22일)이 모두 있다. 지난 세기 가장 주목할 만한 기독교인 중 한 명인 C.S. 루이스가 세상을 떠난 지 거의 6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신앙이 깊고 분별력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에게서 믿음의 본질과 실체를 계속 배우고 있다. ‘예수님은 주님 이시라’는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가 후기 현대인의 귀에는 점점 낯설게만 들리지만, 이 뜻밖의 신앙 챔피언의 재치와 지혜의 가치는 갈수록 확고해져 간다.

C.S. 루이스는 유물론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변론조차 뒤로 미끄러지게 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대중서에서부터 학술적인 것까지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다양한 그의 글은 따뜻하고, 진실하며, 예리한 정신과 오늘날 근본적이라고 여겨지는 진리에 대한 열정적인 충성심을 보여준다.

너무 멋진 영화 ‘어느 무신론자의 영적 순례기: C.S. 루이스 이야기(The Most Reluctant Convert)’에서 묘사되었듯이, C.S. 루이스는 그의 젊은 시절을 세계관과 유행하는 사상을 찾아다니며 보냈다. 이 과정은 진리를 여정처럼 인지하는 21세기 초반의 인식에 딱 들어맞

을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이 대분을 따르기를 거부했다. 약간의 무신론과 불가지론, 범신론과 양성론의 시기 등 우여곡절로 가득 찬 길을 지나 C.S. 루이스는 먼저 유신론에서부터 그가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던 고전적인 기독교로 비틀거리며 돌아갔다.

어떤 의미에서 C.S. 루이스는 자기도 모르게 선조들의 신앙을 받아들였다. 그가 <괴고석의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에 귀의하지 않았다. 포트 와인 한 병이면 그럴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종교가 당신을 정말 편안하게 해주기를 원한다면, 나는 확실히 기독교를 추천하지 않는다.”

또한 C.S. 루이스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개념 중에서 일부를 가져다가 독자가 ‘아, 그건 이미 알고 있던 거였잖아’라고 반응하도록 설명함으로써 사람들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작가로서의 C.S. 루이스의 탁월함과 변증론자로서의 기술은 깊이 있는 진리를 단순하게 묘사하는 기술을 연마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는 오늘도 여전히 진리이지만, 우리가 이 진리를 오늘날 용어를 사용해서 이웃들

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우리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추거나 믿도록 만들기 위해 진리 자체를 바꿔서는 안 된다. 결국,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상상력을 이 세상 너머로 끌어올려야 한다.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그의 작품에 은밀하게 잘 반영되어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영화 ‘반지의 제왕’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기독교 세계관을 흡수했다. 이처럼 C.S. 루이스의 책을 접어 든 회의론자들은 기독교에 전염될 불멸의 위험에 처해 있다. 그의 가벼운 문체와 매력적인 매너는 진리를 성가시게 느끼는 독자들이 방심하게 만든다. 기독교를 이해하는 특이한 기독교인의 이야기를 읽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독자들이 그의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C.S. 루이스가 계속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사람에게 끊임없이 다가가는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의 종교를 ‘실제 삶’과 다른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의 공상 소설은 진리, 선함, 아름다움, 그리고 그가 말했던 것처럼 현대의 보잘것없는 신화보다 ‘더 위로 그리고 더 깊이’ 가고자 하는 갈망에 관한 이

이야기기에 빛이 난다. 그의 산문은 예리했고, 논리는 분명했다. 그러나 영리한 말과 생생하게 성격을 묘사하는 것 이상으로 그의 직업상 비책은 더 큰 무언가 일부였고, 독자들이 하나님, 그들 자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진리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다.

감사하게도 비슷한 비전과 창의력을 가진 두 그룹이 주변의 믿지 않는 이웃에게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더 쉽게 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CS Lewis Doodle’ 유튜브 페이지는 C.S. 루이스의 글에 매력적인 그림을 더해서 소셜 미디어와 이메일로 공유하도록 한다. ‘Fellowship for Performing Arts’를 통한 맥스 맥린의 놀라운 스토리텔링은 C.S. 루이스의 사상을 전국의 무대, 스크린, 대학 캠퍼스로 가져온다. 가장 최근 공연인 ‘Further Up & Further In’은 ‘어느 무신론자의 영적 순례기: C.S. 루이스 이야기(The Most Reluctant Convert)’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해서 회심 이후 C.S. 루이스의 놀라운 영적 순례기를 다룬다. 더 자세한 내용은 fpatheatre.com에서 찾을 수 있다.

/ 존 스톤스트리트, 티모시 패직

원본: breakpoint(20221122)

남자가 여탕에 가도 처벌을 못 한다고?

포괄적 차별금지의 심리학



김진국 집사
(한강공동체,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주임교수)

전한길씨는 공무원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 누적 수강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이른바 ‘일타 강사’다. 그가 얼마 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동영상 강의를 유튜브

브에 올렸다. 그러자 특정 일간지에서 그의 강의 내용을 두고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쏟아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는 전한길씨의 그 강의 영상을 여러 번 돌려 봤다. 그의 주장은 간단명료했다.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혹은 여성이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너무 당연하다.”

전씨는 개별적 차별(individual discrimination)은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포괄적 차별(comprehensive discrimination)이다. 포괄적 차별금지에서는 차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는다.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고, 두루뭉술하게 규정한다.

유전자, 호르몬, 생식기, 생리학적 특성에 의하여 구별된 성별을 우리는 생물학적 성(biological sex, 이하 섹스)이라 부른다. 반면 어떤 개인이 자신의 성별을 생물학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기대에 따라 자신을 남성, 여성 혹은 그 외 성별로 인식했을 때의 성별을 사회심리학적 성(gender, 이하 젠더)이라고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섹스’와 ‘젠더’의 구별이 무척 중요하다.

가령 핀란드에는 ‘성별의 법적인 인정에 관한 법(Act on Legal Recognition of Gender)’이 있다. 개인이 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 횟수를 1년에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생물학적 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신청하면 법적으로 여성으로 인정해 준다는 말이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까? 전씨의 입장에서 보면, 핀란드처럼 섹스가 아닌 젠더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인 어떤 사람이 법적으로 여성의 젠더를 획득해서 여성으로 행세할 수 있게 된다.

법적 보장을 받는 이 ‘여성 호소인’은 성전



경찰에 체포 당하고 있는 데이먼 앳킨스 목사.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고,
침묵 기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세상이 되었다.
이 몰상식한 사회 환경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환수술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남성의 외형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가 (혹은 그녀가) “나는 이제부터 여성이므로 여자 화장실, 여성 탈의실 심지어 여탕에도 맘대로 들어가겠다”고 우기면 법적으로도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 한 발짝 더 나아가 “나는 여성이므로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해도 어쩔 도리가 없을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가 포함하는 대상은 그야말로 포괄적이다. 거칠게 말하면 ‘누군가가 듣기 불편하고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모든 것’이 차별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등 기존에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의 대상이 되었던 거의 모든 테마까지 문자 그대로 모두 포괄하게 되는 것이다.

전씨의 발언은 순전히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근거 없는 상상력의 소산일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녹록하지 않다. 지난 2023년 6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도시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한 데이먼 앳킨스 목사가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앳킨스 목사는 성소수자 모임이 있는 장소 근처에서 성경을 읽다가 질서위반으로 체포됐다.

미국 경찰에 따르면, 그는 행사에 방해가 될 만큼 소란을 피웠고, 그의 설교 내용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 문제의 원인이었다고 한다. 반면 앳킨스 목사는 경찰에게 “이곳은 공공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 결국 체포되었다는 것이다. 앳킨스 목사는 나중에 ‘혐의없음’으로 석방되었지만, 한국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의견 차이가 어떻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전조

가 아닐까 한다.

지난 2022년 11월 영국에서는 한 남성이 낙태를 시행하는 클리닉 근처에서 침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의 기도에는 ‘낙태 반대’로 간주되면서 재판에 회부됐다. 애덤 스미스 코너라는 이 남성은 향후 2년 동안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유죄였는데, 추가로 9천 파운드(약 1,2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애덤은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오늘 법원은 특정한 생각, 즉 침묵 속의 생각도 불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올바른 바르지 않다. 내가 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한 것뿐이다. 이조차 범죄로 간주하는 것은 충격적이다!”

이 사건은 의사 표현의 자유, 종교 활동의 자유를 어느 선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법이 개인의 자유를 일거수일투족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전형적인 혐오 프레임, 차별 프레임 전술 동원

전한길씨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 것인지는 이와 유사한 법을 이미 제정, 시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핀란드 같은 선진국의 예를 봐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모 신문사는 아마도 전 씨가 가진 1타 강사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이번 사태를 좌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

사를 쓴 기자의 시각은 일종의 ‘혐오 프레임(hate frame)’ 혹은 ‘차별 프레임(discrimination frame)’과 다름없다는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기자가 쓴 기사의 한 문단을 인용해 보자.

“전씨는 이 강의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를 여과 없이 내비쳤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남자가 ‘나는 여자다’라고 선언하면 곧바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되는 것이 된다거나 입대를 앞두고 남자가 여성으로 성전환하겠다고 하면 군대 안 가도 된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쏟아냈다. 그는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우리 딸을 보호해야 하므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그 기자는 전씨의 강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전씨의 말이 왜 혐오를 유발하는 것인지 혹은 어떤 부분이 왜 사실이 아닌 허위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그냥 ‘혐오를 여과 없이 내비쳤다.’ ‘허위 사실을 쏟아냈다’라는 등의 표현으로 싸잡아 깎아내린다. 내가 전형적인 혐오 프레임, 차별 프레임 전술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다.

포괄적 차별금지 반대에 대한 전씨의 주장에 대해서 기자가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반박하는 게 아니라 독자들이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하고 비판적 사고를 저해한다면 그것이 혐오 프레임이다. 사회적 대화와 건전한 소통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일방의 관점에서 갈등을 심화시키고, 대안적인 시각을 억압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혐오 프레임이 아니면 무엇인가. 사회심리학자인 조너슨 하이트는 이렇게 말한다.

“차별금지법이나 정치적 올바름이 지나치게 강조될 때, 차별에 대한 과도한 민감성을 조장한다. 사람들이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게 만든다.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갈등이나 불쾌한 경험을 차별로만 규정할 경우, 사람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회피하거나 이를 외부 요인으로 돌리게 된다.”

누군가의 어떤 주장이 자기 편의 주장과 같지 않거나 상반된다고 해서 덮어놓고 혐오, 차별 등의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는 시도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데 심각한 위축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건전한 토론문화가 정립되기는커녕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나저나 어떤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폭력적인 시위를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고, 침묵 기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세상이 되었다. 이 몰상식한 사회 환경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우리가 제2의 데이먼 앳킨스, 제3의 애덤 스미스 코너가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성경적 부모를 위한 '부모 면허'

부모의 옳어치기 한 판!

박인경 사모
(한국심리상담연구소)

우리 속담 중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쓸모 있게 다듬고 만들어야 값어치가 생긴다는 뜻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은사와 재능, 장점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태어나기만 했지 그 은사와 재능, 장점이 빛을 보지 못한 채 나이만 든다. 내가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것을 알아야 더 행복하고, 수월하고, 효율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장점을 찾아줘야 한다. 장점이란 '긍정적인 것', '좋은 면'을 의미한다. 장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강점은 장점과 다르다. 강점은 '남보다 우세하거나 더 뛰어난 점'을 말한다.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장점을 강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녀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는 게 우선이다. 자녀를 늘 사랑의 눈으로 관찰하고, 지지해주면서 자녀의 장점을 발견하고 전달해 주면 자녀 스스로 찾아낸다. 장점이 하나만 있는 아이는 드물다. 두세 가지 장점을 부모가 찾아서 아이에게 전달해 주면 그 장점끼리 연결되고 혼합되면서 자신만의 강점으로 변한다.

자녀의 장점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요소가 있다. 바로 평균이다. 세상은 키, 몸무

게, 지능 등 모든 것에 평균을 두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름답다고 말한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의 키가 평균에 못 미치면 속상하다. 자녀의 성적이 반 평균에 미치지 못하면 걱정한다. 하지만 평균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이자 발달심리학 전문가 토드 로즈(Todd Rose)다. 그는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고, '개개인학'을 가르친다. 그는 자신의 책 <평균의 종말>에서 이렇게 말한다.

"평균에도 나름의 역할이 있다. 서로 다른 두 그룹의 사람들을 비교한 경우라면 평균이 유용한 역할을 해준다. (중략) 어떤 개개인과 관련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라면 평균은 쓸모가 없다."

토드 로즈 교수는 평균은 한 사람을 설명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줄 확률이 크다고 지적한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은 평균으로 줄 세우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평균으로 줄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정체성을 잃고 피폐해졌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평균을 따라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할 조금의 시간조차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부모가 평균의 오류에 빠져서 아이들을 교회 대신 학원에 보낸다. 이 문제점을 지적하면 많은 부모가 어려움을 토로한다. 우리나라 교육 분위기와 이 나라 현실이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답답해한다. 그런데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모'다. 부모가 자녀의 개개인성과 장점을 발견해 줘야 한다. 내 자녀도 국어, 사회, 영어는 잘했는데 수학, 과학, 화학 이쪽으로는 영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시험 성적을 보고 아이가 낙심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해줬다.

"네가 국어, 사회, 영어를 좀 잘하니? 너는 문과적으로는 뛰어난데 이과적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것뿐이야.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지. 그래도 대학교에 가면 네가 좋아하는 공부만 할 수 있어. 그전까지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만 최선을 다해 봐."

이제는 성인이 된 아이가 얼마 전에 "엄마가 그때 그렇게 말해줘서 '내가 몸쓸 아이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라고 고백했다. 자녀의 장점을 강점으로 만들려면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재능이 무엇인지 부모가 살펴보고 끊임없이 알려 줘야 한다.

부모는 '옳어치기 한 판'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세상에는 두 유형의 부모가 있다. 자녀의 약점에 집중하는 부모와 약점 뒤에 숨은 장점을 보는 부모다. 부모도 사람인지라 가만히 있으면 자녀의 약점만 보인다. 자녀의 약점 하나에 꽂혀 '저것만 고쳐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그래서 그 약점을 자녀에게 계속 상기시킨다. 그런 부모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점점 기가 죽는다. 부모가 자신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부모의 의도는 약점을 고치기를 바라는 거겠지만, 결국 자녀의 자존감을 낮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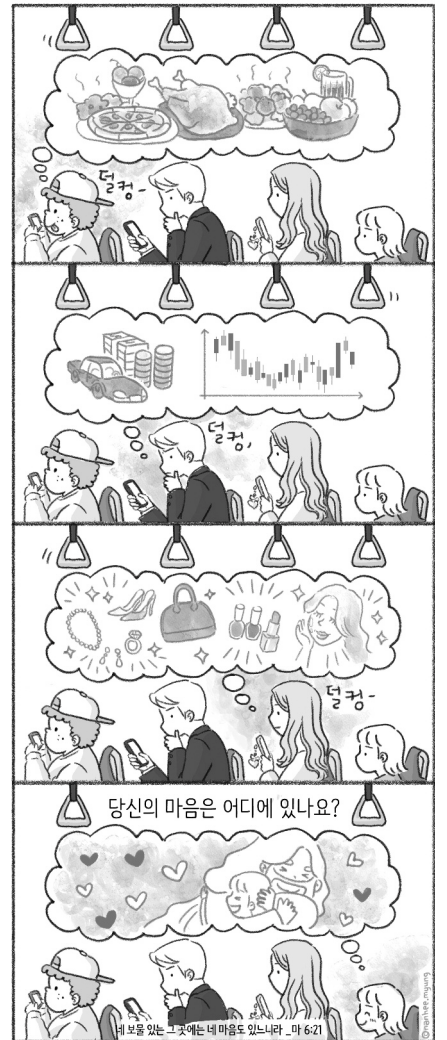
약점을 뒤집어 보면 그 뒤에 반드시 장점이 있다. 자녀의 약점을 한번 옳어치기 해보자. 단점인 줄만 알았던 부분을 옳어 쳐서 하나님이 주신 장점으로 바라보자. 그리고 그 장점을 자녀에게 전달해 주자. 그러면 자녀가 '부모님은 언제나 내 편이구나'라는 생각과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약점을 뒤집는 일은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다. 고집 센 아이가 있다면 배짱이 있고 뒷심이 있는 아이로 생각하자. 모든 일을 미루다가 한 번에 해결하려는 아이가 있다면 게으른 아이로 생각하지 말고, 많은 일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로 생각하자. 그것은 분명 장점이다. 자녀의 약점을 뒤집어서 생각하다 보면, 말해주다 보면 어느새 아이 스스로 그 장점을 강화한다.

* 이 글은 기독교 OTT '풍당' 프로그램 '박인경 사모의 부모 면허 2편 옳어치기 한 판'을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기독교 OTT '풍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 그림 명난희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11월 13일
본문 '시 70:1~4'

1.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즐거워하고 기뻐게 만드시나요? 성경(시 70:1~4)을 읽고 정답을 골라 보세요.

① 내 영혼을 노리는 사람들 ② 남의 영혼을 노리는 사람들 ③ 주를 찾는 사람들

2.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는 적들로부터 하나님이 구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움을 구해야 해요. <시편> 기자의 기도를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세요.

"오 하나님여, 어서 나를 () 하소서. 오 여호와여, 어서 빨리 나를 도우소서"(시 70:1).
"주의 () 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소서!' 하고 끊임없이 말하게 하소서"(시 70:4).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0.27 연합예배 참가 소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 되기를!”

지난 10월 27일, 엄마와 아빠가 서울역에 함께 가자고 했다. 대한민국을 위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집회가 있다고 했다. 엄마, 아빠, 형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갔다. 서울역으로 가는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았다. 지하철을 한 번 갈아타고 서울역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엄마와 아빠 손을 잡고 집회 장소로 갔다.

집회 장소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비가 왔다. 편의점에서 우비를 사서 많은 사람과 함께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갔다. 계단을 다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카페 앞에

돗자리를 깔고 유튜브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이번 집회는 '어떤 사람들이 남자가 자기를 여자라고 주장하거나 여자가 자기를 남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한다면서 그것을 법으로 정하려고 해서 그 법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나는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로 성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만 성별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성별을 결정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해가 안 됐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확실하게 다가왔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

떤 문제로 서울역으로 가는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그 이유를 알게 됐다. 더 열심히 기도할 것이다. 이날 약 110만 명의 크리스천이 모였다고 한다. 이 집회가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이 법이 제정됐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법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박은 학생
(양재 유년1부)

양재 이웃사랑팀과 함께

새로운 기억을 선물하는 공간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가족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을 만났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 나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다. 그들의 소원은 그 아픈 기억을 지우는 것이다.

양재 이웃사랑팀과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기억을 선물하는 공간을 찾았다.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다.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심과 안정, 위로와 회복을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다. 그들과 함께 가정폭력 피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꿈을 꾸도록 도와준다.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A쉼터' 엄마와 아이들.

“그 기억을 지울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느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백이다. 그녀는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하던 남편에게 폭력을 당한 그날의 기억을 도려내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지우고 싶을수록 그 기억이 더욱 선명해져서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그녀를 폭행하던 남편의 손이 어린 딸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무너지는 절망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와 남편이 찾지 못하는 곳으로 숨었다고 했다.

그 끔찍한 기억을 지우고 싶은 것은 그녀만의 소원이 아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 모두가 그날의 기억을 지우고 싶어 한다. 가족에게 당한 그 끔찍한 폭력과 씻지 못할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그 끔찍한 기억 때문에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지난달 27일, 30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들이 어머니에게 술값을 내놓으라며 또 폭언을 퍼붓는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가해자가 되고 말았다. 아들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함께 생을 마감하려다 실패하고 자수했다. 아들이 써둔 유서에는 오랜 시간 가정폭력을 일삼은 아버지에게 미안하지만, 아버지에게는 미안하지 않다”는 말을 남겼다. 범죄를 두둔하거나 옹호하는 게 절대 아니다. 살인은 말을 보탬 필요가 없는 범죄다. 그러나 이 사건 이면에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가 △2021년 21만 8,680건 △2022년 22만 5,609건 △2023년 23만 830건으로 매년 1만여 건씩 증가했다. 지난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신고된 가정폭력이 모두 90만 6,552건이나 된다. 한 해 평균 22만 6,638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있는 셈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도 있다. 여성이 12만 532명으로 남성(3만 849명)보다 4배가량 많다. 연령은 △40대 3만 4,510명 △30대 3만 2,623명 △50대 2만 7,675명 순이다.

그런데 그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누가 도와줄까?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피해서 어디로 가고 있을까?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잠시나마 머무는 곳이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다.

두 번째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우리나라에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가 67곳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는 최대 1년까지 머물 수 있는 '단기 쉼터'와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장기 쉼터'로 구분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는 1366(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긴급 전화상담)이나 경찰서에 신고된 피해자들이 입소한다. 대부분 긴급 상황으로 입소한다. 외부는커녕 슬리퍼나 맨발, 심지어 속옷 차림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

양재온누리교회 이웃사랑팀에서 어느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를 돕고 있다. 피해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쉼터 이름을 밝히지 않고 'A쉼터'라고 칭했다. A쉼터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50여 명(엄마와 자녀)이 생활하고 있다. 이곳은 단기 쉼터여서 1년 정도 머물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자립생활시설로 이동한다.

A쉼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머무는 동안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엄마와 아이들의 정서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엄마들의 자립을 돕는 공공작업장 운영, 아이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 정서발달을 위한 키즈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관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다. 진짜 가족이 되어준다. 명절에는 함께 전을 부치고, 갈비와 잡채, 송편과 떡국을 만들어 먹는다. 매주 주일에는 함께 손을 잡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여름에는 가족 여행을 떠난다. 크리스마스 파티도 한다. A쉼터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서로를 다독이고 위로하며 상처를 치유하고, 그 자리에 행복한 기억을 덧입히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가 그들의 두 번째 가족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의 역할

A쉼터에서 생활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다. 누군가는 남편, 누군가는 아빠, 누군가는 아들, 누군가는 사위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 그 끔찍한 상처를 입고 쉼터에 입소했다. 그런데 쉼터에 입소했다고 문제가 끝난 게 아니다. 가정폭력 행위자가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늘 안고 산다. 엄마들은 자녀들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내가 무능해서 아이들까지 폭력을 당하게 만들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비난의 화살을 자신에게 돌린다. 그래서 우울과 불안, 무기력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A쉼터에서 바로 이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A쉼터에서는 엄마들의 회복과 자립을 돕기 위해서 공동작업장 '봄봄'을 운영하고 있다. 벌써 6년째다. 공동작업장 '봄봄'에서는 에코백, 파우치, 옷, 신발 등을 만든다. 이곳에서 일하는 엄마들의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다. 튼튼하고 실용적이고 디자인까지 세련된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 한번 보면 바로 사고 싶어질 정도다. 엄마들의 솜씨 덕분에 고정 고객이 늘고, 홍보 물품 주문도 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 입소하는 아이들은 가정폭력 행위자 몰래 학교를 옮겨야 해서 '비밀 전학' (학대 가해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를 바꾸지 않고 보호시설 주변 등 인근 학교로 전학이나 입학

지원하는 제도)을 한다. 친구들과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A쉼터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A쉼터에서는 아이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희망스튜디오'와 '희망스피커'의 후원을 받아 예술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들이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책을 만든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돕는다. 아이들이 직접 동화를 쓰면서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 난 그 자리에 행복한 기억, 성공의 기억을 채운다. 아이들이 쓴 글과 그림을 모아 책 <꼬마작가 엘리스, 마법의 힘으로 어둠을 물리치다>도 출판했다.

꼬마 작가들의 출판기념회가 지난달 24~26일 온누리청소년센터에서 있었다. 책 <꼬마작가 엘리스, 마법의 힘으로 어둠을 물리치다>에는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히기 싫어서 날개를 가지고 싶다는 물고기 이야기, 보름달이 뜨는 밤이 되면 늑대로 변해서 나쁜 사람을 혼내주는 이야기, 마법의 힘을 가진 지팡이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성장하는 이야기 등이 담겨 있다. 동화 속 주인공이 작가인 아이들과 많이 닮아있다. 책 <꼬마작가 엘리스, 마법의 힘으로 어둠을 물리치다>은 시중 서점이나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

A쉼터 돕는 세 가지 방법 후원과 자원봉사, 중보기도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A쉼터'를 돕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후원과 자원봉사, 중보기도가 그것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서 생활하는 이들에게 정부에서 한 달에 33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 그 돈으로 엄마와 자녀들이 먹고, 입고, 생활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나머지 생활비는 A쉼터에 들어오는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 생필품이나 식료품 후원도 큰 도움이 된다. 쌀과 김치, 라면, 옷, 신발, 가방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라면 무엇이든 좋다. 생필품과 식료품 후원과 자원봉사 문의는 양재 이웃사랑팀에게 하면 된다. 자원봉사자도 필요하다. 특히 아이들에게 좋은 남자 어른 상(狀)을 보여주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원봉사자가 꼭 필요하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상처를 지우고, 그 자리에 사랑의 기억을 채워주시도록 모두 함께 중보기도했으면 좋겠다.

후원: 농협 301-0354-1238-01
생필품 후원 및 자원봉사 문의:
010-3343-4842(양재 이웃사랑팀)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뮤지컬 〈바울과 나〉 주인공들을 만났다. 그들은 한목소리로 “하나님께 빠져있다면 꼭 이 뮤지컬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더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내가 ‘사울’일 수도, ‘아니스타’일 수도, 등장인물 그 누구일 수도 있기에 개인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마저 돕는다. 뮤지컬 〈바울과 나〉 주인공 바울역 최수형과 아니스타역 선예도 바로 그 점에 주목했다. 그들은 관객들에게 “율법을 지키며 살면서도 죄를 짓는 사울과 연인을 죽인 사울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와 똑같은 길을 걷는 아니스타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발견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다음은 그들과의 일문일답.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하나님께 빠져있다면 꼭 한번 보세요!”

뮤지컬 〈바울과 나〉 '바울'역 최수형, '아니스타'역 선예



기독교 창작 뮤지컬 〈바울과 나〉 공연이 한창입니다. 무척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수형(이하 최): “뮤지컬 〈바울과 나〉에 참여하고, 그것도 ‘바울’이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기쁘고 영광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가님, 연출님, 협력연출님, 대표님, 안무 선생님, 배우들 모두 하나 되어 최고의 공연을 만들거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예(이하 선): “맞습니다. 배우와 제작팀 모두가 더욱 완성도 있는 공연을 올리기 위해 연습과 수정 또다시 연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관객들에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연습 일주일 동안은 하루도 못 쉬고 새벽까지 연습했습니다. 피로가 극에 달하고,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합함께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들과 제작진이 하나 되어 기도로 공연하고 있다는 말이 무척 인상 깊습니다. 배역을 소화하면서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와 감동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 “제가 알지 못하는 준비과정부터가 은혜였습니다.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어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모두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제게 “하나님이 수형 형제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그 교육을 다 듣게 하시나”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그

저 좋아서, 듣고 싶어서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뮤지컬 〈바울과 나〉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 “사실 저는 ‘과연 내가 아니스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스타역을 소화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또 살리려고, 하나님이 아니스타를 통해서 저에게 용서와 사랑을 더 깊이 알려주시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스타의 여정을 걸으면서 제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모든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이 공연의 중심이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실존 인물이고, ‘아니스타’는 뮤지컬 〈바울과 나〉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성경 기반의 가상 캐릭터입니다. 역할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는지, 그 역할에 어떻게 다가갔는지 궁금합니다.

최: “연출님이 저에게 ‘너는 너무 커 살을 좀 빼자고 하셨는데 실�했습니다(웃음). 그만큼 바울을 닮고자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 바울이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 작품에서 연기할 기회를 주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선: 아니스타는 허구의 인물이기에 더 자유롭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나만이만 들어 낼 수 있는 아니스타를 표현하는 일이 무

척 즐겁습니다. 그런데 제가 뮤지컬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술적인 면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공연에 담긴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더 잘 전할 수 있을지 막연함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겁고, 힘든 삶을 사는 아니스타가 느끼는 깊고 깊은 감정을 표현해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큼니다. 그러나 내 모습에도 있는 아니스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아니스타와 제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공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공연하면 할수록 아니스타에게 더 깊이 몰들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도 더욱 풍성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관객들이 “내가 바로 사울이었구나”라는 메시지가 뮤지컬 〈바울과 나〉를 관통하는 메시지라고 고백합니다. 배우들이 생각하는 메시지와 해석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 “관객들이 생각하고 해석하는 메시지에 크게 공감합니다. 저는 바울이 불도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도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울의 자기 신념에 대한 강직함이 예수님을 만나서 올바른 방향으로 향할 때 엄청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울의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면 바울의 역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엄청난 일을 관객들과 함께 기대하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 “맞습니다. 뮤지컬 〈바울과 나〉의 백미는 등장인물에 자기 자신을 투영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아니스타에게 저를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느끼는 용서할 수 없는

마음, 분노의 마음을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관객들도 〈바울과 나〉 등장인물에 자기 자신을 투영하면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시는 마음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아니스타가 마지막에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며 ‘아, 내가 바로 사울이었다. 나 또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도 사랑하고 사용하시는구나’를 깨달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기독교 창작 뮤지컬 〈바울과 나〉 관람을 고만하는 이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 “뮤지컬 〈바울과 나〉가 성극(聖劇)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하지만, 성경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용서와 화해를 그리고 있습니다. 넌크리스천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더라도 보시면 뮤지컬 〈바울과 나〉의 매력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선: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이 주로 ‘괜찮아, 내가 참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시기가 지나면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픈 게 뻔히 보이는데 괜찮은 척하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는 것보다 솔직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뮤지컬 〈바울과 나〉의 또 하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빼졌거나 미움을 안고 살아간다면 뮤지컬 〈바울과 나〉를 꼭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포근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맛있는 말씀 해설

“...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창 4:5)

〈창세기〉 4장 5절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많은 성경 독자가 이 내용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한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된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두 형제가 각각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은 거부되고 아벨의 제물만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사실은 표면적으로 불공평해 보일 수 있다. 특히 성경 본문에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 사건의 배경과 이유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워하고 당혹감을 느낄 수 있다.

가인은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와 첫째 아들이다.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농작물이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둘의 제물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본문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여러 존재한다. 그중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제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 드린 사람, 즉 가인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있다.

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가인이 어떤 농산물을 드렸는지, 아벨이 어떤 양을 드렸는지 깊이 다루지 않는다. 대신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려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라는 구절은 아벨의 제사가 단순히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제사에 담긴 아벨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요소였음을 알려준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단순한 제물의 종류나 크기를 보신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자의 믿음과 신앙 상태를 보신 것이다. 아벨은 그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자신의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을 표현했지만, 가인의 경우는 믿음과 순종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가인의 내적 상태, 그가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올바른

마음과 태도가 부족했음을 암시한다. 가인의 분노와 실망은 그의 제물이 거부된 이후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인의 마음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무조건 거부하신 게 아니라 그가 올바른 믿음과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단순히 외적인 제물의 종류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고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과 태도, 믿음을 보신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 사건은 현대의 독자들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준다.

첫째, 하나님은 외형적인 제사나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신다.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리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면 그 제사는 의미가 없다. 아벨의 제물은 그의 믿음을 반영하는 제사였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다. 우리의 예배와 헌신도 마

찬가지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의 뜻에 맞춰야 한다. 가인의 실패는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제사 드린 결과였다. 이는 우리의 예배와 헌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에 담긴 믿음과 순종이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4장 5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본질이 외형이 아니라 마음과 믿음에 있음을 가르친다. 따라서 가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배와 헌신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가짐에 있다는 교훈을 주면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오은규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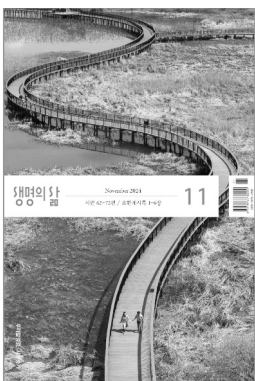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일곱 교회에 담긴 주님의 계시

11월 18일~11월 24일
〈요한계시록〉 1:1~3:13

목상포인트 1: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에게 최후 소망이지만,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는 최후 심판이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악에 대한 심판 메시지는 꺾박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아갈 이유가 된다.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묵상하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밧모섬에 유배된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 영화로우신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았다. 요한은 그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해 일곱 교회에 보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일곱 금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의 얼굴은 해가 비치듯 것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다. 일곱 금 촛대는 일곱 교회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를 상징한다. 그분은 전에 죽었지만 부활하셨고, 영원히 살아 계시며,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다.

목상포인트 2: 요한은 일곱 교회로 대표되는 모든 교회와 성도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주님은 각 교회와 성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며,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알려 주신다. 일곱 교회 중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칭찬과 책망과 약속이 무엇인지 묵상하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해야 한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실 것이다. 환난과 궁핍을 겪었음에도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는 생명의 관을 받으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버가모 교회에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충성된 증인이 있었지만, 악한 유혹에 넘어진 자들은 회개해야 한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감추셨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실 것이다. 두아디아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보이며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많았지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주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며, 이기는 사람에게는 권세와 새벽 별을 주실 것이다.

목상포인트 3: 회개는 생명을 누리는 비결이다. 교회와 성도는 주님이 죄를 깨우치실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한다. 일곱 교회 중에 사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칭찬과 책망

과 약속이 무엇인지 묵상하자.

▶사데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다. 그들은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해야 한다. 이기는 사람은 흰 옷을 입을 것이며,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기에 시험의 때를 면할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고, 주님의 새 이름이 그에게 기록될 것이다.

-적용을 위한 가이드

▶하나님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요한계시록〉을 어떤 자세로 읽고 묵상하는지 자신을 돌아보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떠한가? 첫사랑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다면 중심으로 회개하자.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힘쓰자.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에게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며 내게 맡겨 주신 직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성도에게 박해보다 무서운 것이 부요함과 방종이다. 영혼을 잠식해 오는 사탄의 공격에 맞설 수 있도록 영적, 도덕적으로 늘 깨어 있는 삶을 살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켜 칭찬받았다.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야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동생을 위해서!

제 동생은 선형성 심장병으로 큰 수술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그럼에도 동생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양보하며 살았습니다. 그 동생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장병이 있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항암제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와 함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온 가족이 절망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가장 속상한 것은 동생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생이 “하나님이 있다면 심장병이 있는 내게 어떻게 백혈병까지 주시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냐”고 절규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앞뒤 없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공동체와 지인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3차 항암 치료 이후 백혈구 암세포 수치가 제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급속도로 심장 상태가 나빠져 심부전이 왔고, 다시 무균실에 입원한 상황입니다.

저와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동생의 심장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와 건강하게 저희와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동생이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평안을 얻도록 기도해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제부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기도해주시고.

/ 왕상미 성도(마리아행진)

멘토가 멘티에게

갈등과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

“공동체에 다뤄서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하나요? 그냥 이대로 지내면 안 되나요?”

공동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게 가능한 선택일까 싶다. 많이들 갈등 상황을 피하거나 방치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장기적으로 자기 자신과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갈등을 무시하면 감정을 억압해서 ‘감정 누적’을 초래할 수 있다. 감정은 억누를 수 있는 게 아니다. 억눌린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다.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Freud)는 억압을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했다. 그는 개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이나 충동을 무의식 속으로 억누르면 억압된 감정이 나중에 부정적인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인관계에서 갈등과 분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밝혔다. 갈등을 무시하고 회피하는 것은 표면적으

로는 평화를 유지하는 듯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불만과 상처가 쌓여서 장기적으로 더 큰 폭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 갈등을 방지하면 관계의 질이 점차 악화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서로 관계 안에서 사랑하며 행복을 느끼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해결하지 않은 지속적인 갈등 상황은 개인의 자존감에도 악영향을 미쳐 자신감을 떨어뜨린다. 사회적 관계에 불안감을 높여 적절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알고 계시기에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

회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수 1:9)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갈등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위로와 힘을 주신다.

공동체에서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문제를 더 키우는 선택이 될 뿐이다. 갈등과 문제는 피하기보다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가 더욱 단단해지고, 개인 역시 성장할 수 있다. 서로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더 나은 관

계를 만들어 갈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서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충만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최숙영 멘토
(인천WEB대학청년부)

“갈등 해결 과정에서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충만을 누릴 수 있다!”

상호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공동체에서 이런 상황은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공동체의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다.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지내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편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계속 갈등 상황을 피하려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 부정적 정서를 보상하기 위한 중독에 빠지거나

다가 네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 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다음에 돌아와 드려라”(마 5:23-24)고 말씀하셨다.

왜 갈등을 해결해야 할까? 긍정적인 갈등 해결 과정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문제를 잘 해결할 때 더 깊은 신뢰가 형성되고, 관계가 더욱 성장하는 기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그럴 수도 있지!”

한 가족이 일주일 동안 가족여행을 떠났다. 오랜만에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바다를 보면서 답답했던 마음의 찌꺼기들을 날려 버렸다. 가족들 마음에 있던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누면서 행복한 휴가를 즐길 수 있었다. 그 즐거운 추억을 안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가족들이 길고 먼 귀갓길에 올랐다. 장거리 운전 이후 한가득 여행 짐과 다시 쌓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다. 가족이 휴가 가 있는 동안 에어컨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아내가 참지 않고 “여보 내가 출발하기 전에 에어컨 끄라고 했지! 전기요금 폭탄을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당신 때문에 못살아 정말!”이라며 분노와 원망의 말을 차갑게 쏟아냈다. 남편은 죄인이 된 듯 아무 말도 못 하고 거친 숨만 내쉬었다. 즐겁고 행복했던 여행의 추억이 한순간에 박살 나 버렸다. 아내는 아내대로 마음이 상했고,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화가 났다. 부부 싸움을 보는 아이들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였다.

이 당황스러운 상황이 흔히 일어날 수 있다. 함께 여행을 가거나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종종 예기치 못했던 일이 발생할 때가 있다. 모든 방의 전등이 환하게 며칠 동안 켜져 있을 수도 있고, 에어컨이 쉬지 않고 작동해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정신없이 여행 혹은 외출을

준비하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만일 이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상대를 비난하지 말고 상황에 대해서만 말해야 한다. 누구든 직접적인 비난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당신은 내가 얼마나 정신없이 출발 준비를 했는지 알아? 당신이 확인하고 출발했으면 안 됐어?” 등 상대방에게는 원망의 말에 받았던 고통 그 이상을 배우자에게 돌려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한다. 정말 성숙한 사람만이 “내가 실수했네. 다음부터는 더 주의할게!”라고 말할 것이다. 부부 사이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성숙하다고 할 수 있다.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 말할 수 있다. “에어컨이 켜져 있었네!” 라고 말이다. 그러나 상대에 대한 비난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가능하면 비난과 질책은 하지 않는 게 좋다. 비난보다 완곡하고 부드럽게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

둘째,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의 고약한 심보 중 하나가 상대방의 실수를 보면 그냥 두지 않고 지적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깊은 상처를 조심스럽게 나눴는데 그 이야기가 가십거리로 퍼돌기도 한다. 상대방의 허물과 아픔을 덮어 두기보다 드러내고 말하고 싶은 게 인간의 연

약함일 것이다. 즐거운 휴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벌어진 누군가의 실수를 곧바로 지적하고 책임을 추궁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이지만, 그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야말로 미덕이다.

우리는 누구나 부모님의 눈감아주는 배려를 받고 자랐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눈감아 주고 품어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작은 실수를 덮어주고 품어준다면 그 행동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허물을 덮어주는 행동이 선순환되면 부부와 가족이 더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쌓을 수 있다.

셋째, 역할 분담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는 게 기로 삼는 것도 좋다. 일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상호점검’ 하는 것은 일하는 현장에서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업무가 잘 전달됐는지, 맡은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서로 점검하고 격려하면서 일이 완성되도록 해야 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게 분명한 업무 분담과 부단한 대화이다. 부부와 가족이 계속 가사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업무 분담이 분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에어컨 끄는 것의 역할에 누수가 생겼다면 다음에는 같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부부와 가족은 앞으로도 함께 수많은 외출과 휴가, 여행을 가야 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상황이 수없이 반복될 수 있다. 계속 누수가 발생하는 업무라면 더욱 분명하게 분담하고 상

호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사랑과 온유함으로 말하는 것이 필수적 요소이다.

넷째, 부부싸움을 할 만큼 중대한 일인지 평가해야 한다. 정말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큰 일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일들이 큰 부부싸움으로 번질 수 있고, 자녀들을 타당하지 않게 혼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족에게서 일어나는 많은 일을 분류해 보면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엄청난 거나 대단한 게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 목숨 걸 일이 아니라면 “그래 그럴 수 있지”라며 수용하고 넘어가는 부부가 되면 좋겠다.

여행 다녀왔는데 며칠 동안 가동됐던 에어컨을 본다면 누구나 당황할 것이다. 책임을 져야 하는 누군가에게 비난과 책망을 돌리고 싶은 것이다. 피곤이 많이 쌓인 상태라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수도 있다. 전기요금 폭탄을 생각하면 미친 듯 화가 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다. 수용과 용납이 필요한 게 가족 관계이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덮어주는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황규복 목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사랑해서 결혼한 당신에게> 저자)

2024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

11월 30일 오후 4시 양재 사랑홀

2024년 온누리교회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를 오는 11월 30일(토) 오후 4시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드린다. 이날 권사 150명(명예권사 6명, 권사 144명), 안수집사 510명(남 175명, 여 335명)이 임직된다(11월 13일 기준).

권사·안수집사 임직 대상자들은 임직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지각이나 불참하면 임직이 인정되지 않는다. 복장은 남자 검정색 정장(흰색 셔츠), 여자 검정색 또는 짙은색 바지 정장(자켓 필수)에 흰색 블라우스 또는 셔츠다. 당일 교회 주차장은 3인 이상 동반 차량만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차량은 양재 주차빌딩(양재역주차장, 서초구 강남대로 221)을 이용해야 한다(개인 부담). 이날 12시~16시 30분과 18시



사진은 '2023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 .

~19시 30분 양재역과 교회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2024 권사·안수집사 임직대상자들은 9월 7일 개강한 '임직자스쿨'에서 훈련받았다. 임직자스쿨에서는 '교회론과 목회철학', '온누리교

회 비전과 창의적 리더', '건강한 영성 건강한 리더', '일터영성', '안수집사·권사의 모델' 등을 주제로 훈련이 이어졌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차별금지법, 한국 교회의 미래는?

CGN '특별좌담회' 법률, 의학, 사회 분야 전문가 출연

CGN이 11월 16일(토) 오후 7시 '차별금지법, 한국 교회의 미래는?'을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방영했다. 특별좌담회 영상은 기독교 OTT '풍당'과 CGN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이번 특별좌담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면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의학적, 사회적 영향과 세계관 측

면까지 어떤 과장이 있을지를 논의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담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섰다. 기독교 윤리 김원평(한동대학교 석좌교수), 의료 민성길(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법률 이태희(국제변호사, 목사) 등이 참석했고, 진행은 라영환 교수(종신대학교 조직신학)가 맡았다. / 홍하영 기자



제16회 온누리 한마음 축구대회

국내 온누리교회 8개 캠퍼스 200여 명 참석

제16회 온누리 한마음 축구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1월 2일(토)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서빙고, 양재온누리교회 등 국내 8개 캠퍼스 소속 성도 2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회예배에서

는 여성민 목사(전도사역본부장)가 설교했다. 온누리 한마음 축구대회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축구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우정을 다지며, 온누리교회 선교 정신을 이어가는 뜻깊은 행사다.

뮤지컬 <바울과 나> 감상문 대회

12월 10일까지 A4 한 장 분량

기독교 창작 뮤지컬 <바울과 나> 감상문 대회를 개최한다. 12월 10일(화)까지 A4 한 장 분량 감상문을 글자 크기 10pt로 작성해서 이메일(wisdom7@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당선작은 12월 15일 <온누리신문>에 게재하고, 당선자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보내준다. 관심이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기독교 창작 뮤지컬 <바울과 나>는 12월

7일(토)까지 평일 오후 7시 30분(월요일 없음), 주말 오후 2시와 6시 KT&G 상상마당 대치아트홀에서 공연한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잔여석에 한해 40% 할인한 가격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하단 QR에 접속해서 인증번호(Paul001)를 입력한 다음 예매하면 된다. 인터파크 티켓에서 할인을 받으려면 온누리교회 주보를 지참하면 된다.



하나원사역팀, 하나원 동창회 개최

11월 30일 오후 6시 온누리청소년센터 소강당

사회선교본부 하나원 사역팀이 한누리팀, 전도사역본부와 함께 하나원(북한일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동창회를 개최한다. 오는 11월 30일(토) 오후 6시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소강당에서 'The 만남'을 주제로 열린다. 하나원 동창회는 하나원을 수료한 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탈북민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초청하는 만남의 장(場)이다.

하나원 동창회 'The 만남'에서는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가 말씀을 전하고, 가수 이무송 집사가 공연한다. 북한이탈주민 방송인 정유나, 박대현 대표(우리온)가 게스트로 출연해 토크쇼도 한다. 참가신청은 하단 QR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3463-9686

내적치유학교 참가자 모집

12월 6~8일 양지 Acts29 비전빌리지

내적치유학교 68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2월 6일(금)부터 8일(일)까지 2박 3일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is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60명 모집한다. 회비는 15만원(장소 대여, 간식, 강의 준비물 등

포함). 내적치유학교는 하나님 안에서 내면의 상처를 회복하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기원 목사, 최용준 목사, 정희성 목사, 오은규 목사가 강의한다. 문의: 010-7194-1569

양재 이웃사랑팀, '러브미' 봉사자 모집

양재온누리교회 이웃사랑팀에서 '러브미' 사역을 함께할 봉사자를 모집한다. '러브미'는 매월 마지막 주 성도들이 교회에 가져온 성미(聖米)와 재활용 가능한 헌옷을 서빙고온누리교회 나눔장터에 전달해서 모은 재원으로 쌀을 구매해서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사역이다.

문의: 010-3343-4842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참가자 모집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독일편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5년 1월 25일(토)부터 2월 4일(화)까지 11박 12일 '루터의 생애'를 주제로 독일을 일주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전화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문의: 010-4902-1022

양재 만남의 잔치

일시: 11월 17일 오후 3시 30분 양재 드림홀

강남A 김예수 김주현 류상현 이광숙 이예준 조유경	강남D 김동용 정수연	분당B 진선애 최우진	동원 임윤형 장지윤
강남B 김상만 박민정 박은수 정종인 최연아	강남E 강현석 박주숙 배재현 배현모 서연주 송기일 유순창 윤현희 이관신 채송이 최윤정	서초B 김소영 신공주 유해상 최지수	양재B 권윤희 이진희
강남C 곽미경 김주희 배정희 양윤정 오시은 임종우 조훈석	과천의왕 남궁안숙 송파A 김찬주	서초C 박서현 신연철	공평 김윤희 김현영 김희영 이신영 이정윤 장성훈 한지희
도곡 김성미 이경원	양재A 김태림		

NGO 더멋진세상, 우간다 남수단 난민촌 급수시설 설치

NGO 더멋진세상이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협력해서 우간다 북부에 있는 팔로리나 난민 정착촌 '칼리(Kali)마을'에 급수시설을 설치한다. 이 난민촌에는 12만 명이 넘는 남수단 난민들이 5년째 살고 있는데, 급수시설이 미진한 상태다. 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질병을 예방하도록 NGO 더멋진세상이 급수시설 설치 및 위생교육을 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2022년 현장답사를 통해 난민촌 중에서도 급수 수요가 높은 세 개 마을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첫해인 2022년에는 이보아(Iboa)마을, 2023년에는 친이(Chinyi)마을에 급수시설을 설치했고, 올해는 칼리(Kali)마을에 우물을 설치한다. 칼리 마을에 설치될 급수시설은 2,600여 명의 토착민과 난민들이 생활수 및 식수로 사용할 예정이다. / 홍하영 기자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024 차세대 독후감 대회

온누리교회 도서관에서 차세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소속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2024 차세대 독후감 대회'를 개최한다. 12월 1일(일)까지 부모와 차세대가 함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읽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고민해 보고, 그 내용을 독후감을 써서 온누리교회 도서관(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도서관)에 제출하면 된다. 독후감 분량은 200자 원고지 유년부 3장 이상, 초등부 5장 이상, 소년부 7장 이상

이다. 시상식은 12월 22일 온누리교회 도서관에서 할 예정이다.

문의: 02-3215-3110

CGN, 말씀 달력 출시

한국로잔과 CGN이 함께 말씀 달력 '이천이십오년의 기도'를 출시했다. 이재훈 목사 등 12명의 목회자가 매월 주제 말씀을 선정했다. 두란노서점(서빙고점, 양재점, 송도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문의: 02-796-2243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 차세대 교사 간증



/ 이지아 교사(양재 고등부)

사랑의 선순환

사춘기를 지나면서 꿈이 하나 생겼었다. 좋은 어른이 되는 것이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어른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내가 성장하는 동안 좋은 어른과 아름다운 어른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방황하던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어른, 그 길이 틀렸다고 혹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말해줄만한 어른이 어린 나에게 필요했던 것 같다.

그런데 좋은 어른이 되는 길이 쉽지 않았다. 막연하게 생각만 했지 내가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돌이켜보면 무엇인가 할 기회가 없었다기보다 누군가에게 좋은 어른으로 다가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애써 모르는 척했던 것도 같다. 매년 있는 차세대 교사 모집 광고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지금이 위기다. 지금만 넘기면 1년은 또 부담감 없이 지낼 수 있어’라며 눈을 꼭 감았다. 나는 공감 능력이 거의 없다시피 한 사람이라 교사라는 직책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말 하고 싶지 않아서 오랜 기간 잘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

교사를 시작하면서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 고민하던 때가 생각한다. 대인관계가 서툴고, 말을 따뜻하게 할 줄 모르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매주 간식을 포장해서 건네주는 것이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기다리는 것이었다.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는 아이의 말을 기다리는 것, 예배에 오지 않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것, 아이들이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표현이 미숙한 나도 잘할 수 있었다.

꽤 오랜 시간 기다렸던 것 같다. 아이들의 연락에 바로 반응해 주려고 스마트폰 알람을 끈적 없이 몇 년을 지냈다. 낮에도, 밤에도 아이들의 연락에 응답하면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언제든 달려가 아이들에게만큼은 쉬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교사를 시작한 지 벌써 8년이 되었다. 그 시간이 쌓여서 “네”라는 말 한마디 듣기 어려웠던 아이들이 수다쟁이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나를 걱정해 주면서 같이 성장하는 관계가 되었다.

돌아켜보면 참 행복한 순간이 많았다. 그 행복보다 더 의미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이다. 내가 섬기는 동안 내 입을 통해 아이들에게 했던 모든 말이 사실은 ‘10대의 나’에게 필요했던 말이었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나의 화법으로, 내가 가장 잘 알아듣는 방법과 상황을 통해서 그 말들을 하게 하면서 ‘어린 지아’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다.

나는 어릴 적 좋은 어른을 만나지 못한 게 아니었다. 내가 오랜 시간 기다리던 아이들처럼, 나 역시 누군가의 기다림 속에서 성장해 왔다. 무책임한 방관이라 느껴지던 그 시간이 나의 성장을 기다려준 기다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원망이 감사로 바뀌었다. 이제는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수많은 선생님의 사랑이 내 삶에 남아서 또 다른 형태의 사랑으로 다음세대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 아이들도 나에게서 흘러간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보낼 것을 기대한다. 많은 성도님이 이 사랑의 선순환에 동참해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다.

■ 차세대 교사 간증



/ 문소연 교사(서빙고 소년1부)

사랑의 마음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네 명의 자녀를 주셨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다. 무엇보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인내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또 자녀들을 위해 무릎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함께 울고 웃으며 때를 따라 가랑비에 옷이 젖듯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 명의 자녀들이 자라도록 축복하셨다.

결혼하고 모 교회에서 2년 동안 제자훈련과 정과 전도폭발 등의 훈련을 마칠 즈음 한 집사님이 “이제는 교사해야 하지 않아요?”라고 말씀하셨다. 한창 은혜가 충만할 때라 순종하며 시작한 게 교회 교사의 출발이었다. 모 교회에서 찬양 교사로 섬기면서 열정이 가득했다. 자료가 많지 않던 때라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고, 많은 찬양 CD를 수소문 끝에 구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유아부 예배를 자원해서 탐방하는 등 그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10년 정도 지났는데 점점 공허해지고 지치기 시작했다. 처음 열정이 무색하게 원망이 늘기 시작했다. 그즈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온누리교회로 부르셨다.

온누리교회에서 처음 3년은 온전히 예배를 통해 회복하고, 치유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셨다. 주일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게 정말 행복했다. 나의 그 행복은 ‘저희는 선생님을 해치지 않아요’라는 안내판을 들고 교사로 섬겨 달라는 파워웨이브 학생들의 특송을 들으면서 변화되었다. 하나님이 온누리교회로 나를 옮겨 주시고, 교사의 마음을 다시 불태워 주셨다. 벅찬 마음으로 교사지원서를 작성했다. 온누리

교회에서 두 번째 교사의 길을 걸었다. 신입 교사 교육을 받으면서 다시금 나를 교사로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온누리교회에서 유년부 찬양 교사로 섬기며 만난 친구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기억한다. 그동안 받은 다양한 훈련은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달았다. 4년 동안 유년부 찬양 교사로 섬겼는데, 초등학교 5~6학년이 예배드리는 소년부에 찬양 교사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소년1부 찬양팀 교사로 지원해서 섬겼다. 하나님이 사춘기로 접어드는 소년1부 친구들에게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고, 그들과 함께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다. 지난해까지 소년1부 찬양 교사로, 올해는 총무로 섬기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로서 사랑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며 인내해야 함을 알게 하였고, 교사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나를 찬양 교사로 세우면서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소년1부 총무가 된 지금은 공동체를 돌아보며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랑의 지경을 넓혀 주셨다.

얼마 전 온누리교회 공동체 성도님께 교사를 권유했더니 “저는 교사를 할 자격이 안 돼요”라고 하셨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차세대 교사는 나와 만일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이 기회를 잡기를 축복한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교사의 자격은 하나님이 주신다. 다음세대를 위한 사랑의 마음이면 충분하다. 미래를 이끌어 갈 다음세대 응원단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서빙고																											
■ 가정사역		■ 광명		전준배 임희창 최하영 조성근		홍명옥 김은미		최애심 박금선		송수환 구 현 신동희 이지현 오혜진 홍미영 이경진 유미란 이병두 이태효 이신영 길은미		최경옥 오금석		이희수 박지영 정지영 김경실		김남근 홍호식 신한서 심우혜 홍채은 김지은		박현준 이민준 배민재 이주호 양수아 박미숙 엄자상 조동화 엄길현 황지혜 오동준 김희식 오아영 홍연주 유은혜 배은하 이범휘 광동한		이보영 허진희 이소민 김조은 이소는 박지호 이시온 김채수 임해성 주명숙 장지혜 이지선 정슬아 박혜진 정은광 김승환 조광현 정재호		진재영 김기훈 최현명 김정은 한수민 박명화 한은혜 황정미 허규희 최현민 허소정 신주현 허지원 박선영 황혜주 윤연정		■ W		강다솔 조호동 심은영 이정연 이민지 조유리 이수용 허준영 이예지 노진화	
■ 서빙고		■ 동작		■ 서빙고		■ 신용산		■ 여의도		■ 이수		■ 찬양사역		■ OCC		■ CHPlus		■ Pole2		■ SNS							
■ 김포		■ 마포		■ 서산온누리		■ 성동광진		■ 영등포구로		■ 이촌		■ 한강		■ S브릿지		■ 대청		■ 길		■ 요셉							
■ 강서		■ 노원		■ 동대문중앙		■ 북누리		■ 서대문		■ 은누리마션		■ 공동체없음		■ 일산파주		■ 일산파주		■ 일산파주		■ 일산파주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 관악											

장로칼럼

관대함으로 선을 베풀라!



조청구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손자병법〉을 쓴 ‘손자’는 두 다리가 없었다. 〈이솝우화〉를 쓴 ‘이솝’은 척추 장애인이었다고, 교향곡을 작곡한 ‘베토벤’은 청각장애인이었다.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는 한 평생 팔을 못썼다.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

이 없었다면 세계적인 명작을 남길 수 없었던 사람들이다. 돌담은 자연에 있는 돌로 쌓은 담장이다. 큰 돌을 먼저 놓고 틈새마다 작은 돌을 끼워 넣는다. 강풍에 넘어지지 않도록 틈새에 넣는 돌이 납작하거나 둥글거나 삐죽하더라도 다 들어갈 곳이 있다. 돌담의 큰 돌은 작은 돌의 도움 없이는 견딜 수 없다. 서로 의지하고 맞물려 있어야 무너지지 않는다.

모퉁이돌(cornerstone)은 집의 기둥을 떠받치는 돌로 건물 모퉁이에 놓여 벽을 지탱해주는 주춧돌 역할을 한다.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마 21:42)라고 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다. 집을 지을 때 쓸모 없다고 건축자에게 버려진 돌이 잘 지어진 번듯한 집의 주춧돌이 된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돌은 길가에 버려진 채 뒹굴면 쓸모없는 돌멩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강가나 계곡에 놓이면 물고기들의 안식처가 되고, 전원주택 정원에 조경용으로 쓰이면 그 품격이 사뭇 달라진다. 이렇듯 인간이나 사물은 모두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단지 그 안에 감춰진 존재 가치를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하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마 6:3)고 하셨다. 하지만 타인을 향

한 연민과 관심, 나누고 베풀려는 인간의 선한 충동이 관대함의 바이러스에 전염될 때 세상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인간의 이타적 본성과 선한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통찰(洞察)과 영감(靈感)을 준다. 인간은 받은 대로 돌려주려는 성향이 있어서 타인의 친절을 경험하거나 선행을 목격하면 친절의 연쇄반응이 일어난다. 선행의 의도보다 효과에 집중한다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이 따뜻한 세상을 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더없이 복된 일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인간이 무언가 하지 않으면 하늘의 뜻도 이뤄지지 않는다. 무언가를 창조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따로 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선택하기도 하고, 선택받기도 한다. 선택에 따라 인생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 매 순간 선택이 지난 삶의 궤적을 압축한다. 우리는 돌담처럼 타인의 어깨를 빌리지 않고서는 행복하게 살 수 없다. 서로가 어깨를 내어주고 맞춰주면서 틈새 사이로 사람 냄새가 나면 더 좋다. 관대(寬大)함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손을 내밀어 줄 때 관계 가치와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이다. 고난과 시련의 때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한다. 바위 같은 와신상담(臥薪嘗膽)의지도 혼자 지켜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혼자하면 이뤄낼 일이 적지만, 함께 하면 아주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합력하며 선을 이뤄갈 때 자존감이 높아질 것이다. 관대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로 소망한다.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남에게 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도 목이 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잠 11:25).

권사칼럼

죽음을 벗어나고, 생명을 선물하는 ‘전도’



박인숙 권사
(신원산공동체)

8남매 막내며느리인 나는 친정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에 대한 관심이 많다. 시대는 대가족이라서 일도 많고, 말도 많다. 그 가운데 말없이 묵묵히 일하며 진심으로 손윗사람, 손아랫사람을 섬기는 조카매 질부가 늘 마

음에 남는다.

무남독녀인 질부를 40년 이상 지켜봤지만 사람이 참 견결같다. 10년 전부터는 치매 걸린 시어머니와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침침한 친정어머니를 함께 모시면서 시누이들과 시동생도 잘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궁금했다. 그녀는 우리 부부를 보면 “제가 부족하고 게을리 작은아버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말한다. 그녀는 성당에 다니다가 신심(信心)이 부족해 요즘 냉담자로 있다고 했다.

명절에는 엄마의 수고를 덜어주려고 주방을 떠나지 않는 그녀의 성품을 빼닮은 손녀딸이 있다. 몇 년 전, 그 손녀를 밖으로 불러내 밥을 사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청년부예배를 소개했다. 손녀는 “할머니, 고맙지만 지금 하는 일이 많아 어려워요”라고 했다.

그런데 그 손녀가 폐암 말기로 수술이 어렵고 항암제 투여만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렵사리 만났다. 내가 “이렇게 착하고 예쁜 딸이 왜 하필 이런 병에 걸렸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라고 질부에 게 물었다. 질부는 “글쎄요, 모르긴 해도 아마 전생에 죄가 있었거나 저도 모르는 죄가 있어 그렇지 않을까요?”라며 내게 되물었다. 나는 “질부의 죄 때문이라기보다 이 병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고 복음을

전했다. 옆에 있던 전도 짝꿍인 임성숙 권사가 폐암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 중이며느리 이야기를 간증했다. 그랬더니 모녀의 얼굴이 밝아지며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날 이후 질부와 손녀가 공기 좋다는 평창 산속으로 요양을 떠났다. 나는 이들 모녀에게 보이스톡으로 말씀 양육을 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손녀의 뇌까지 암이 전이 돼 큰 수술을 몇 번씩 했다. 조카 부부는 어떻게든 딸을 살려보겠다고 애를 썼다. 손녀와 그 가정을 위해 ‘무릎마리아 중보기도팀’이 함께 기도했다. 나는 매일 “생명은 주께 있다. 치료의 광선을 소연이에게 비취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자”라며 질부를 끊임없이 격려했다.

얼마 전 손녀가 의식을 잃어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어떤 말로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지 기도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소연이는 죽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라는 마음을 주셨다.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주시하는 손녀가 마치 천사 같았다. 나는 손녀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소연이 정말 사랑하시는 것 알지? 넌 안 죽어,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거야”라고 말했다. 갑자기 손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옆에 있던 조카 부부가 놀라며 “작은 어머니, 소연이가 알아들었나 봐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네요. 이제는 딸을 우리 손에서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라고 말했다.

전도는 죽음을 벗겨주는 것이다. 생명을 선물하는 일이다. 소연이 남동생도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누나를 통해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닌 줄 알았다”며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할 때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표적도 보여주신다. 그때마다 전도는 역시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

신앙에세이



이상욱 목사
(양재 차세대 파위웨이브)

파위웨이브(청소년부서)에서는 매월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눈다. 11월은 ‘성령의 열매’에 관해 묵상하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사랑’이다.

‘사랑’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일 것이다. 성경은 ‘사랑’

에 관해 수없이 반복하며 강조한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요 3:16)라고 말씀한다. 또 “네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되는 계명”(마 22:37-38)이라고 말씀한다. 이처럼 성경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

한다면 ‘사랑’ 만큼 적합한 단어가 없다고 생각한다.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사랑’이라는 단어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조차 사랑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을 깨달았더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갈급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미처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셨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고전 13:7).

이 말씀에 담겨있는 사랑의 의미가 내 마음을 크게 움직였다. 나를 포함한 모든 자녀를 위해 지금까지 덮어주시고, 믿어주시며, 견뎌주시는 하나님이 떠올랐다. 백성들의 끊임없는

덮어주고 믿어주고 견디는 ‘사랑’

불순종도 용서해 주시고,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며 고통 가운데 계셨던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눅 23:34).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순간까지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나를 통곡하게 했다. 회개의 통곡이었다. 바쁘게 흘러가는 사역 앞에서 내 마음에 불만이 가득했었다. 남편과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하는 부분에서도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덮어주는 자리, 믿어주는 자리, 견뎌주는 자리가 바로 사랑의 자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동안 나에게 허락하셨던 사랑의 자리가 머

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삶의 모든 고단한 순간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었던 축복의 자리였음을 마음에 새기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처음 중등부로 부서 이동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선교지로 가고 싶더니 정말 선교지로 가시네요”라고 말씀하셨다. 말 그대로 질풍노도 시기를 지나는 중등부 친구들을 섬기는 자리가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이곳이 힘들기만 한 자리가 아니라 사랑의 자리임을 기억한다. 많은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만큼 더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자리임을 기억한다.

이 글을 읽은 모든 분을 ‘차세대 교사’라는 사랑의 자리로 초대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을 믿어주시며, 우리의 미숙함을 견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하시길 때문이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00 분당
3부 오후 1:00 분당 4부 오후 3: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분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분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분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시아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장소: 선교관 믿음홀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010-5766-446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사랑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홍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청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사랑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일본어예배부(02-3215-3702)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B1 시온홀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온누리M미션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 / 러시아어
예배 12:00 신동아 2층 화평홀 / 몽골어예
배 14:00 선교관 믿음홀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달 첫 주만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3:00 온누리청
소년문화센터 4층 강의실1
인천 온누리M미션
모자이크예배 14:00 3층 소망홀
안산M센터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지하 Onnuri Hall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베트남어예배 10:30 301호 / 아랍어예배
12:00 2층 Library /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4층 Manna Hall / 우즈베키스탄
어예배 14: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3층 Startree / 중국(청장년)예배
11:00 4층 Manna Hall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2호 / 태국어예배 14:00 4층
Manna Hall / 필리핀어예배 14:00 지하
Onnuri Hall / 대학청년부 12:30 302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팡 11:00 1층 Star Tree Academy / 다문
화 예꿈 11:00 지하 Dream Kids Room
김포M센터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몽골어예배
17:00 706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703호 / 다문화 파워
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
팡 11:00 705호
군산M센터
ANEWS예배 11:00 1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1:00 102호
남양주M센터
네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4호 / ANEWS
예배 11:00 301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304호 / 힌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3:00 306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분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
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화성M센터
네팔어예배 11:00 202호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1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를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양재 온유홀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간제출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서빙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을
문의: 010-5250-1233

CMN 라파팀 외국인 진료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넷째 주일 오후 4시-6시
분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간호사
장소: 서빙고 선교관 B1 라파진료실
문의: 박귀홍 팀장(010-9990-2875)

TP44기 단기선교사 훈련생 모집
기간: 12월 30일~2025년 1월 24일
장소: Acts29비전빌리지
접수: www.visionvillage.org
마감: 11월 29일까지
문의: 031-331-818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3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시아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쁨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온유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렐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
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Samuel Hatangimana
Maxime Szustak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560-0059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랜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비전홀B
문의: 010-6422-8376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
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CMN 시온팀 의료진 모집
모집: 치과
내용: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마노아팀 의료진 모집
일시: 10월, 11월 셋째 주일 오후
분야: 산부인과 진료(여의사) 1명
문의: 류기선 팀장(010-2468-2755, 문
자 먼저 연락)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초빙**
분야: 조직신학
접수: 2025년 2월 3일(월) ~ 13일(목)
15:00까지
문의: 02-570-7192
*홈페이지(www.ttgu.ac.kr)에서 초빙공
고 참조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5부 7:00(온라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
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분당 / 2부 11:25 분당 / 3부 14:05 분당
대학청년(주일) 16:00 분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분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
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
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분당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주일예배, 예꿈놀이학교, 사이닝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
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
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3:50
대학청년 16: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아부 9:00, 11:30 누리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
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분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분당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세종교육관
분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분당 / 6:00 세종교육관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
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
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
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분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00 사
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분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분당
새벽예배 오전 6:20 분당

남양주 031.515.3521

토요가족예배 10:30 B2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09:00 B2 분당 / 2부 11:30 B2
분당 / 3부(대학청년) 16:00 B2 분당 행복한하나예
배(탈북민) 11:00 B1 소예배실
외국어예배 중국어예배 14:00 B1 소예배실 / 힌디
어예배 토요일 19:00 남양주M센터 301호 / 네팔어예
배 토요일 19:00 남양주M센터 301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B2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B2 분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B2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3F 꿈아이홀 / 유치부
11:30 3F 꿈이툼홀 / 유년부 11:30 2F 드림홀 / 초등
부 11:30 4F 비전홀 / 중등부 11:30 교육관 3F 믿음
홀 / 고등부 11:30 교육관 3F 소망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
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
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펜
젤라홀 / 초등부 11:30 길보튼홀 / 중등부·고등
부 11:30 박도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도세홀/ 금요
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백향목홀
일요주일예배 1부 9:00, 2부 11:30 백향목홀(3층), 대학청년예
배 14:30 언더우드홀(2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14:30 백향목홀(3층), 꿈팡(초등부)
11:30 알렐루(2층), 꿈팡(유년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펜젤라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국내 온누리교회 ●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6-6500 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3335 서울시 강동구 현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41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해외 온누리교회 ●		
■ 미서부 • 엘바인 박순홍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를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 Higasinasaisabi Chuuku Osakasi Japan • 우에다 히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 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 Yaomasa Bldg 4F, 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 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1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 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 ukyo-ku, Kyoto-shi
		■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택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illegible]

결혼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12:00 양재 사랑홀
 김상목, 이미선(온누리교회)의 아들 김승현(온누리교회)
 오성철, 유성은(온누리교회)의 딸 오소예(온누리교회)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2:00 양재 사랑을
장진구, 김미숙의 아들 장성수(온누리교회)
이친주, 이재화(온누리교회)의 딸 이희선(온누리교회)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박지혜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복)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2-3215-3413)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서민정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봉사
자격: 경로식당 배식봉사를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 복지관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문의: 우성경 사회복지사(02-794-6100)

시립서역역쪽방상담소 우리동네구강관리플러스센터
 불사자 모집
 내용: 치과 의료진 어시스트 및 안내
 자격: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위생학과 학생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14시~17시), 요일 및 시간 협의
 문의: 전현미 치과위생사(070-4153-4547)

온누리요양센터 이미용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차매, 중풍 등 입소 어르신(외부 미용실 이용 어려운 어르신)
내용: 이미용 봉사(개인, 단체 가능)
자격: 이미용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양지온누리교회 부근)
문의: 배인환 사회복지사(070-4489-6880)

재정

● **누리과학교의 한글 매뉴에서 모바일한
글을 하셔야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
어에 먼저 다운로드 하세요.

● **한글은리인 안내**

- 실업조항금: 하니은행 573-810034-10105
- 주요한금: 하니은행 573-910018-28205
- 간사한금: 하니은행 573-910018-27605
- 한글교정금: 하니은행 573-810034-09105
- 비전한금: 하니은행 573-910009-96104
- 절기한금: 하니은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은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접수: 02-793-2997, 010-4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서무 상담: 둘째주요일만 가능(예약 필수)

소천

11/8(금) 강남C 유은경 성도 부친상 고 유상근
11/9(토) 이촌 이기영 성도 부친상, 윤지현 집사 시부상
고 이축엽
11/10(일) 일본어예배 서평원 성도 모친상 고 신명숙
11/11(월) 양천 이한국 집사, 박숙자 권사 자녀상 고 이상훈
11/12(화) 영등포구로 김소연 집사 모친상 고 조경숙
11/12(화) 신용산 마성오 집사 부친상, 김남윤 성도 빙부상
고 마용만
11/12(화) 이수 이주영 성도 부친상 고 이정윤
11/12(화) 마포 심남주 집사 부친상, 김은신 권사 시부상
고 심낙운
11/13(수) 한강 고 박연주 성도
11/13(수) 영등포구로 심성순 집사 부친상, 김승호 집사
빙부상 고 심일보

바울로부터
[메시지 트립]

CGN 선교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의 감동을 그대로!
바울·성지 전문가와 함께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생생하게 만나보세요



트립일정		강사	금액
5차	2/24 - 3/6 (11일)	이길주 목사 성지순례 전문 사역자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튀르키예, 그리스 전문 사역자 현 JDHUB 대표 현 길목교회 담임목사	373만 원

✈ 그리스 경로
아테네(아덴) - 고린도 - 메테오라 - 베뢰아 - 데살로니가 - 빌립보

✈ 튀르키예 경로
드로아 - 에베소 - 밀레도 - 파묵칼레(히에라폴리) - 안탈랴(앗달리아) - 비시디아 안디옥 - 갑바도기아 - 이스탄불

- * 매너 팁 비용(150유로, 22만원 상당) 포함

* 파묵칼레 카트 투어 비용(50유로, 7만원 상당) 포함
- * <바울로부터> 책 증정(2만 5천원)

* 세계 5대 박물관인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 관람

